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4 호 | 2018.10.31

“한국 146 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8 위” (KBS 뉴스, 9.27)



한국이 세계 146 개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로 18 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올해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에서 한국은 100 점 만점에 87.13 점을 얻어 18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26 위)보다 8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기본적 인간욕구, 웰빙, 기회 등 삶의 질을 위주로 여러 항목을 조사해 2013년부터 매년 SPI를 산출하고 있으며, 딜로이트는 2013년부터 SPI의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해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은 인간의 기본욕구 부문에서는 96 점을 받아 10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교육, IT 인프라 등을 높게 평가 받아 기초 지식과 정보·통신 접근성 항목이 포함된 ‘웰빙’ 부문도 89.1 점을 받으면서 22 위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공기 질과 수질을 반영하는 ‘환경의 질’ 부문에서는 52 위(79.1 점)에 그쳐 미세먼지 방지 대책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회’ 부문은 76.28 점(20 위)을 받았습니다.

조용호 딜로이트 안진 공공부문 리더는 “우리나라는 사회발전지수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공기 질 향상,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 개선 등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회발전지수 1 위는 종합 점수 90.26 점을 얻은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아이슬란드(2 위), 스위스(3 위), 덴마크(4 위), 핀란드(5 위), 일본(6 위), 네덜란드(7 위), 룩셈부르크(8 위), 독일(9 위), 뉴질랜드(10 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46 개국의 사회발전지수는 평균 63.46 점이었습니다.

<M&A 회계자문> 딜로이트 안진, 1 위로 ‘수직상승’ (연합인포맥스, 10.1)

지난해에는 ‘빅(Big) 4’ 회계법인 중 최하위에 그쳤던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 3 분기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 반전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3 분기 4 위를 기록했던 딜로이트 안진은 LG 그룹의 오스트리아 ZKW 인수 등 다수의 굵직한 딜을 자문하며, 올해 3 분기 회계자문 분야에서 1 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연합인포맥스가 1 일 발표한 ‘2018 년 3 분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완료기준 회계자문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총 2 조 5 천 556 억 원의 거래를 자문했다.

연합인포맥스는 대금지급이 마무리된 100 억 원 이상의 거래를 취합해 순위에 반영했다. 공동자문을 수행한 경우 거래금액을 자문사 수로 나눠 집계했다.

기업인수 시장
(서울·연합인포맥스) 3분기 실적 - 지난해에는 오렌지라이프 제각 자문한 총액 3분기 인수·합병 1위, 1분기 실적 부문에 오렌지라이프 제각, CS 3위

지난해 3분기 4위를 기록하던 딜로이트 안진은 올해 3분기 회계자문 분야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연합인포맥스는 대금지급이 마무리된 1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취합해 순위에 반영했다. 공동자문을 수행한 경우 거래금액을 자문사 수로 나눠 집계했다.

딜로이트 안진 실적: PwC(21.39%)와 1조 원 이상의 격차를 내는 데도 성공한 셈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이번 실적은 전체(6조 6천 266억 원)의 38.5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위인 삼일 PwC(21.39%)와 1조 원 이상의 격차를 내는 데도 성공한 셈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호실적에는 LG 그룹을 도와 오스트리아의 차량 조명업체인 ZKW(1조 4천억 원 규모)의 인수를 마무리한 점이 주효했다. LG 전자와 (주)LG 등이 참여하는 등 LG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이번 거래는 올해 8월 초 모두 완료됐다.

또 지난 7월 완료된 금호타이어 매각(6천 500억 원 규모) 딜에서 인수 측인 더블스타의 회계실사를 도운 점도 경쟁사들과의 순위를 벌리는 데 도움을 줬다.

이밖에도 딜로이트 안진은 LG 화학의 미국 유니실 인수, 한국타이어의 독일 라이펜-뮐러 인수 등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자문을 맡으며 존재감을 뽐냈다.

2 위에는 지난해 3 분기 1 위였던 삼일 PwC 가 이름을 올렸다. 삼일 PwC 는 총 1 조 4 천 177 억 원의 거래를 자문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딜에서 금호타이어의 회계자문을 담당한 데 더해, 호반건설의 리솜리조트 인수(2 천 500 억 원)와 스카이레이크의 LS 엠트론 전자부품 사업 인수(1 천 900 억 원)에도 참여했다.

3 위는 EY 한영의 차지였다. EY 의 한영은 올해 3 분기에 총 1 조 3 천 906 억 원 규모의 회계자문을 실시, 2 위인 삼일 PwC 를 바짝 추격했다.

EY 한영은 리솜리조트 딜과 LS 엠트론 전자부품 사업 매각,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정리 등의 거래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딜로이트 안진의 이번 실적은 전체(6 조 6 천 266 억 원)의 38.5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 위인 삼일 PwC(21.39%)와 1 조 원 이상의 격차를 내는 데도 성공한 셈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호실적에는 LG 그룹을 도와 오스트리아의 차량 조명업체인 ZKW(1 조 4 천억 원 규모)의 인수를 마무리한 점이 주효했다. LG 전자와 (주)LG 등이 참여하는 등 LG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이번 거래는 올해 8 월 초 모두 완료됐다.

또 지난 7 월 완료된 금호타이어 매각(6 천 500 억 원 규모) 딜에서 인수 측인 더블스타의 회계실사를 도운 점도 경쟁사들과의 순위를 벌리는 데 도움을 줬다.

이밖에도 딜로이트 안진은 LG 화학의 미국 유니실 인수, 한국타이어의 독일 라이펜-뮐러 인수 등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자문을 맡으며 존재감을 뽐냈다.

2 위에는 지난해 3 분기 1 위였던 삼일 PwC 가 이름을 올렸다. 삼일 PwC 는 총 1 조 4 천 177 억 원의 거래를 자문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딜에서 금호타이어의 회계자문을 담당한 데 더해, 호반건설의 리솜리조트 인수(2 천 500 억 원)와 스카이레이크의 LS 엠트론 전자부품 사업 인수(1 천 900 억 원)에도 참여했다.

3 위는 EY 한영의 차지였다. EY 의 한영은 올해 3 분기에 총 1 조 3 천 906 억 원 규모의 회계자문을 실시, 2 위인 삼일 PwC 를 바짝 추격했다.

EY 한영은 리솜리조트 딜과 LS 엠트론 전자부품 사업 매각,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정리 등의 거래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4 위를 기록한 삼정 KPMG 는 올해 3 분기에 총 1 조 2 천 16 억 원 규모의 회계자문을 처리해 지난해보다 두 계단 떨어진 순위를 기록했다.

경영권 이전 거래만을 따로 집계해봐도 순위는 마찬가지였다.

딜로이트 안진이 2 조 5 천 556 억 원 수준의 경영권 이전 거래를 자문해 1 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일 PwC(자문규모 1 조 2 천 12 억 원), EY 한영(1 조 769 억 원), 삼정 KPMG(5 천 734 억 원)이 뒤를 이었다.

경영권이전을 제외한 지분양수도, 부동산거래, 합병 및 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 실적에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삼정 KPMG(6 천 282 억 원)가 1 위로 집계됐다.

한편, 거래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은 발표기준 집계에서도 딜로이트 안진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3 조 5 천억 원 규모의 KCC 컨소시엄의 모멘티브 인수, 2 조 3 천억 원 수준의 신한금융그룹의 오렌지라이프(구 ING 생명) 인수, 중국 텐센트와 국내 사모펀드(PEF)인 IMM 의 블루홀 지분 투자 등에서 모두 참여하며 총 7 조 700 억 원 수준의 회계자문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발표기준 2 위는 1 조 5 천 123 억 원 수준의 자문실적을 기록한 삼정 KPMG 였고, 3 위와 4 위에는 삼일 PwC(3 천 480 억 원)와 EY 한영(1 천 756 억 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그널 초대석] “올 하반기 M&A 시장 10 년來 가장 활발 할 것” (서울경제 시그널, 9.12)

홍중성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장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업에 맞춤형 투자 대상 제공
구조조정 재무자문 요청도 늘어



“올 하반기 인수합병(M&A)시장은 10 년來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부대표)은 12 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 ‘시그널’을 만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재편과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재계와 투자금융(IB)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와 CJ 그룹이 M&A 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빅 4 로 불리는 회계법인 중 1 위는 아니다. 하지만 삼성의 하만 인수 등 메가 딜(mega deal)에 잇따라 참여하면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LG 전자가 오스트레일리아 조명회사인 ZWK 을 1 조 원에 인수할 때 자문을 맡았다. 대형 거래를 잇따라 수임한 안진의 비결은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요약된다.

문을 맡았다. 대형 거래를 잇따라 수임한 안진의 비결은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요약된다.

홍 본부장은 “안진이 파트너십을 맺은 딜로이트는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 회사”라면서 “전 세계 150 여 개국에 뻗어있는 딜로이트 현지법인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투자대상을 소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대기업의 비핵심 계열사 매각도 안진 회계법인이 주목하는 대상이다. 홍 본부장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정리 M&A 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룹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딜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은 CJ 그룹의 조이렌터카 매각 당시 자문을 맡아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파는 데 일조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에서 한 번 투자나 인수가 이루어진 기업에 재투자해 가치를 높이는 세컨더리(secondary)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는 다른 펀드운용사(PE)가 이미 인수한 기업을 더 높은 가격에 넘겨받는 세컨더리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PE의 손을 거치면서 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제거되고 재무적 가치인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가 올라가면서 흔히 ‘먹튀’로 부르던 PE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무엇보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데 비해 적절한 투자 대상이 많지 않은 상황이 PE들의 세컨더리 투자 수요를 늘리고 있다”며 “앞으로 세컨더리 전문 PE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안진에는 구조조정 분야에서 재무자문을 요청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안진은 이에 맞춰 딜로이트 중국 법인과 손잡고 ‘밸류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체를 줄이거나 거점지역을 통합해 이전하고 유희자산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정부의 입김이 심하고 규정이 까다로워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본부장은 “딜로이트는 중국과 홍콩에 보고된 전체 구조조정 자문 거래의 43%에 참여했다”면서 “지금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한 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올슨 딜로이트 안진 전무 “세무 자문, 글로벌 파워 높일 것” (한경머니, 9.2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세무 자문 서비스(Tax & Legal Services) 선두 수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빅 4 회계법인 간 역대 경쟁을 넘어 해외 부문의 수익 비중을 늘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세무 전문가인 스콧 올슨(Scott G. Oleson) 전무를 영입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 자문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해만 해도 세무 자문 부문의 총 매출은 893억 원으로 경쟁사인 삼정 KPMG(540억 원), 한영회계법인(481억 원)을 크게 따돌렸다. 현재 딜로이트 안진의 세무자문 본부에는 국제 조세 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조세 서비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업무프로세스솔루션(Business Process Solutions, BPS), 인수·합병(M&A) 세무 자문, 조세 불복 서비스, 해외주재원관리(GES, Global Employer Services), 금융기관 세무 자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약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포진돼 있다.

딜로이트 안진 측 관계자는 “딜로이트 안진은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하며 여러 세무 분야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업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불복 서비스는 명성에 걸맞게 수년간 상위권을 지키고 있고,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서비스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지난 6월 딜로이트 안진에 동지를 튼 스콧 올슨 전무는 25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 온 국제 조세 전문가다. S&P500 다국적 대기업에 국제 조세 자문, 글로벌 M&A 등의 세무 자문을 제공했으며, 직전에는 미국계 기업인 플로서브(Flowserve)에서 세무 담당 부사장(vice-president)까지 역임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딜로이트 안진의 세무자문본부에 파견돼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5년 가까이 한국 문화를 접했다. 당시의 인연으로 한국인 아내와 함께 슬하에 3명의 자녀도 두고 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올슨 전무를 직접 만났다. (후략)

<기사 전문보기>

LH, 통영 폐조선소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에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선정 (이데일리, 9.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CAMP MARE'(캠프 마레)를 최종 선정했다고 10 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에스엘에이엔지니어링(국내, 건축) △Henn GmbH(독일, 건축·도시·조경) △사이트 플래닝건축사사무소(국내, 도시·건축) △유신(국내, 도시·토목·교통) △주식회사메타기획컨설팅(국내, 문화관광콘텐츠)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국내, 부동산컨설팅) △인우플랜(국내, 조경) 등으로 이뤄졌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계적인 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4 월 참가의향서를 모집했다. 5 월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20 개팀이 참여했다.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작품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 핵심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인 12 공방을 모티브로 하는 '12 개 교육프로그램'을 단지 내 배치해 통영지역 경제 재생을 이끌도록 구상했다.

심재호 심사위원장(전 UIA 세계건축가연맹 이사)은 "이번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폐조선소 부지의 장소 활용과 매력적인 문화관광콘텐츠 도출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당선작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에는 35 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권이 주어진다. 그 외 초청팀에는 1 억 원 상당의 지명초청비가 지급된다.

LH는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과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설계범위, 일정 등을 확정하고, 10 월 계약 체결 후 11 월부터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 일까지다. 1 등 1 팀에 1000 만 원 및 국토부장관상, 2 등 4 팀에 500 만 원, 3 등 10 팀에 100 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 1 회 세계미래포럼]“투명성 확보한 블록체인, 무역금융서 유용” (세계일보, 10.18)

기조강연 / 폴신 딜로이트 亞太 금융부문 리더 “기업 정보 공유·여러 기관서 검증 가능…사기·부정거래 예방 가능…신뢰성 높아”

“블록체인은 파괴적 기술이 아니다. 은행·보험사·중개사가 모두 사라지는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18 일 세계미래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폴신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본부 금융부문 리더는 블록체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 “블록체인은 B2B(기업간 거래) 데이터 동기화에 가장 적합하다”며 “기업 간, 산업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국가 간에 공유를 원할 때 기존 체계보다 블록체인이 훨씬 더 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폴신 리더는 중국, 홍콩 등에서 핀테크 업무를 해온 금융 전문가다.

폴신 리더는 실제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사례로 '무역금융' 분야를 꼽았다. 무역금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신용평가 문제로 인해 은행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대출을 진행한다. 폴신 리더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첫 거래가 몹시 어렵다”며 “전통적 기술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폴신 딜로이트 아태본부 금융부분 리더가 18 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 세계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 1 회 세계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폴신 리더는 블록체인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상에 올려진 기업의 정보는 여러 기관이 서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검증된 정보가 공유도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용 거래의 위험 요소인 사기나 부정거래도 쉽게 탐지하고 예방한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이다. 국가 간 거래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도 블록체인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고유의 식별정보는 들어가지만 이 정보는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암호화 방법) 처리를 통해 다른 곳에 이전되면 안전하게 동기화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 블록체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도 불가능해져 세무당국이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폴신 리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대신 이를 공유해 고객 입장에서도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결제청산, 협조용자, 스마트계약,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